

강진군, 지역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단' 운영

신규 회원 16일까지 모집 우수 농수특산물 직접 판매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대

강진군이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단' 신규 회원 모집에 나섰다.

6일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단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운영규약 개정 및 신규회원 모집에 대

한 안건을 심의했다. 신규회원 모집은 지역의 많은 농어업인과 업체들이 지역행사는 물론 관외 각종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는 등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직거래사업단 신규회원 모집은 16일까지 신청 자격은 강진군 내에서 농림축수산업 및 농수특산물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농어업인 및 업체가 해당된다.

직거래사업단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1차 원물, 2차 가공)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를 통해 1차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직거래사업단 임시총회를 개최해 2차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회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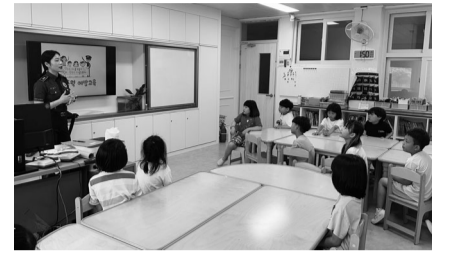
강진군은 이번 신규회원 모집을 통해 더 많은 농어업인이 참여해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더 많이 알려 지역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넓혀나가길 기대하고 있으며 신규회원 모집은 내

년부터 11월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 직거래사업단의 규모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품질 경쟁력 및 생산 역량 강화를 갖춘 체계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직거래사업단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농정실(061-430-3132)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목포경찰, 늘봄학교 대상

목포경찰서(서장 김범상)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5일 연산초등학교에서 저학년 학생들(2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늘봄학교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시간 전·후에 돌봄 및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늘봄학교 참여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임을 고려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범죄유형, 대처 및 신고방법에 대해 사례위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교통안전 내용을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목포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33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강진군, 9월말까지

강진군은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자진신고는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한 달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완도군, 카약·래프팅 등 해양 레저 스포츠 무료 운영

완도군은 18일까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양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교육·체험)'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해양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상 안전 및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여 사고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레저 스포츠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해양 레저 스포츠 종목은 카약(1~2인승), 래프팅(6인승), 서프 보드(1인승), 딩기 요트(1인승), 요트 항해(10인승) 등이며 서프 보드와 딩기 요트는 경력자에 한해 체험이 가능하다.

체험은 현장(체험 행사 일부)에서 당일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한다.

완도=정태영 기자

강진군, 콩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 최대 95% 지원

강진군은 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당초 7월19일에서 오는 16일까지 4주 연장됨에 따라 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6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 경영 안정과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강진군은 올해 처음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중 '콩' 품목 보험료의 자부담분 10%에 대해 절반을 추가 지원해 총 보험료의 95%를 지원·추진 중이다.

이는 이상기후로 잦은 호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벼 대신 심는 논콩이 습도에 취약하며 보험료가 높은 점을 감안해 논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재해 때 농가의 소득보장을 꾀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콩 재배 필지이며,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내 농협을 직접 방문해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집중호우로 습해가 우려되는 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미가입 농가의 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콩 품목의 가입 기간 연장에 따라 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농가들이 확대됐다"며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영암군, 부모교육 참가자 모집

영암군이 다음달 12~17일 진행되는 '2024년 부모교육' 참가자를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6일 영암군에 따르면 3회에 걸친 이 교육은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조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

12일 '양육태도 검사'를 통한 우리아이 지도 방법'에 이어 13일에는 '기질과 성격으로 알아보는 나와 아이 관계'가 주제다. 두 번째 교육에서는 검사지로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하는 소통·양육 방법을 알려준다.

17일은 아이와 소통하고 추억을 만드는 '가족과 함께 오란다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교육 신청은 8일까지 전화와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인문도시팀(061-470-2257)에서 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진도군 공공일자리 사업에 선발된 참여자들이 마을 화단을 가꾸고 있다. 진도군은 오는 11월30일 까지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개시... 총 60개 일자리

진도군이 공공일자리 사업에 선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6일 진도군에 따르면 공공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난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는 연도별 정비·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공공시설 관리·운영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은 △읍·면 공공근로 32명 △지역공동체일자리 28명으로 총 60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진도군은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휴식 시간제 운영과 폭염경보 발령 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무자들에게 냉감소재의 쿨도시, 쿨스카프와 아이스팩 등 지원물품도 지급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자 보호와 앞으로 더 많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완도 해양치유센터서 9~10일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

완도군에서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2024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6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페스티벌은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완도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페스티벌은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 위치한 완도해양치유센터 옆 광장(완토리니)에서 9일과 10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9일 오후 4시30분, 맥주(무알코올) 빨리 마시기 대회를 시작으로 해양치유 버스킹 라이브, 썸머 나잇 EDM 파티 등 야간 공연과 해양치유 비어존 등을 운영한다.



해양치유 비어존에서는 시원한 생맥주와 치킨, 다양한 핑거푸드, 완도군과 보해양조가 협업하여 만든 소주인 '다시, 마주', 완도군관광협의회에서 직접 만든 수제 맥주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해양치유 버스킹 라이브에는 총 6팀이

참여하며 썸머 나잇 EDM 파티는 DJ와 스트리트 댄스 팀이 하나 되어 신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치맥 페스티벌에 많은 피서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완도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조 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지원반, 현장 대응반 등을 꾸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청정한 해변이 있는 신지 명사십리는 여름철 최고의 휴양지이다"며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과 함께 완도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